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단윤진

1. 머리말

본 보고서는『2020년 한국유교 레포트-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에서 출간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위의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20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성리학 관련 논문은 총 10편이다.

2019년 21편, 2018년 46편, 2017년 66편을 비교해 볼 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꾸준히 있어 왔던 학위논문이 2019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2020년엔 다시 4편의 석사논문과 1편의 박사논문 등 총 5편의 학위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10편의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기현	주희(朱熹)의 호상학(湖湘學) 비판에 관한 연구 : 공부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2	김선중	주희의 理 개념에 대한 연구 : '理動靜' 해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	부천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3	김세환	권(權) 개념에 대한 한(漢) · 송(宋) 경학(經學)의 쟁점 연구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4	길훈섭	성리학의 도덕 체계에 대한 현대 과학적 재구성 : 『북계자의(北溪字義)』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5	박길수	정명도의 인설 연구(II)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6	이소영	『中庸』의 다기성(多岐性)에 관한 연구 : 주희, 정약용, 심대윤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7	이원석	蘇軾의 人性論 연구 –도학 성립 이전의 북송대 인성론 논쟁과 관련하여–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4	한국동양철학회
8	이형준	『朱子語類』의 '史'인식과 朝鮮의 수용	東洋古典研究 권호사항 Vol.0 No.78	동양고전학회
9	임태훈	朱熹 心統性情 研究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동양철학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10	최보경	朱子의 『大學』 '能慮' 해석에 나타난 실천적 유용성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본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는데, 북송시대 성리학자로는 소식(동파,1036~1101), 정호(명도, 1032~1085) 등 2명의 논문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있었던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강절, 1011~1077), 주돈이(염계, 1017~1073), 장재(횡거, 1020~1077), 정이(이천, 1033~1107)에 관련된 논문은 2020년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남송시대는 전년도에 있었던 장식(남헌, 1133~1180), 육구연(상산, 1139~1192), 채침(구봉, 1167~1230) 등의 논문은 찾을 수가 없고 대부분 주희(회암, 1130~1200)의 논문이 있으며 주희와 관련된 진순(북계, 1159~1223)의 논문이 있다.

둘째, 그 동안은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 2)역학, 3)심성론, 4)이기론, 5)수양론, 6)인식론, 7)기타 등으로 정리하였으나 2020년엔 논문 편수가 적어 1)경학, 2)이기·심성론, 3)수양론 4)기타 등으로 분리하였다.

셋째, 그 동안은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하고 비평 하였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2. 인물별 분류

전년도(2019년) 인물에 관한 논문은 북송 시대에는 소옹 1편, 주렴계 1편, 장재 1편, 정호 3편, 정이 1편의 일반 논문이 있었으며, 남송 시대에는 주희 8편, 장식 1편, 육구연 1편, 채침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주렴계와 채침은 주희와의 관련 논문이었다. 그리고 학위논문은 보이지 않았다. 2020년도엔 소식의 논문이 1편 새로 등장했고 정명도 1편, 주희의 논문이 7편이다.

1) 소식(동파, 1036~1101)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蘇軾의 人性論 연구 –도학 성립 이전의 북송대 인성론 논쟁과 관련하여–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4	한국동양철학회

소식에 관한 논문은 그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이원석의 논문 〈蘇軾의 人性論 연구 -도학 성립 이전의 북송대 인성론 논쟁과 관련하여- (『동양철학』 Vol.0 No.54, 한국동양철학회)〉가 1편 있다.

2) 정호(명도, 1032~1085)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길수	정명도의 인설 연구(II)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2020년도 정명도에 대한 논문은 박길수의 〈정명도의 인설 연구(Ⅱ) (『동양철학』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가 1편 있다. 2019년에는 총 3편이 있었다. 2018년에는 없었고 2017년은 이정(二程)에 관한 논문으로 2편, 2016년 1편, 2015년 2편, 2014년 3편의 논문이 있다.

2020년에는 소옹, 주렴계, 장횡거, 정이천에 관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2019년엔 소옹에 관한 논문은 1편이 있었다. 소옹은 2018년에는 박사논문을 포함하여 4편이 있었고, 2017년에는 2편, 2016년에는 없었으나 2015년에는 2편, 2014년에는 그에 관한 논문이 없다. 2019년 주렴계에 관한 논문도 1편이다. 그동안 주돈이에 대해 발표된 논문은 2018년에는 3편, 2017년에는 4편, 2015년, 2016년에는 논문이 없었고 2014년에는 3편의 논문이 있다. 2019년 장횡거의 논문은 1편이 있다. 2018년에는 그에 관한 논문이 없었고 2017년에는 2편, 2016년에는 없었고. 2015년은 1편, 2014년에는 3편의 논문이 있었다. 2019년 정이천에 대한 논문은 1편이 있다. 2018년에는 3편의 논문이 있었고 2017년은 이정(二程)에 관한 논문으로 2편, 2016년에 1편, 2015년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총 2편, 2014년에는 1편도 없었다.

3)주희 (회암, 1130~1200), 7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기현	주희(朱熹)의 호상학(湖湘學) 비판에 관한 연구 : 공부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2	김선중	주희의 理 개념에 대한 연구 : '理動靜' 해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	부천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3	길훈섭	성리학의 도덕 체계에 대한 현대 과학적 재구성 : 『북계자의(北溪字義)』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4	이소영	『中庸』의 다기성(多岐性)에 관한 연구 : 주희, 정약용, 심대윤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5	이형준	『朱子語類』의 '史'인식과 朝鮮의 수용	東洋古典硏究 (The study of the Eastern Classic) 권호사항 Vol.0 No.78	동양고전학회
6	임태훈	朱熹 心統性情 硏究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동양철학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7	최보경	朱子의 『大學』 '能慮' 해석에 나타난 실천적 유용성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2020년에 주희에 관한 논문은 학위논문을 포함해서 총 7편이다. 학위 논문으로는 박사논문으로 길훈섭의 〈성리학의 도덕 체계에 대한 현대 과학적 재구성 : 『북계자의(北溪字義)』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편과, 석사 논문으로 김선중의 〈주희의 理 개념에 대한 연구 : '理動靜' 해석을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이소영의 〈『中庸』의 다기성(多岐性)에 관한 연구 : 주

희, 정약용, 심대윤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이태훈의 〈朱熹 心統性情 硏究(동국대학교, 석사논문)〉 등 3편으로 총 4편의 학위논문이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김기현의 〈주희(朱熹)의 호상학(湖湘學) 비판에 관한 연구 : 공부론을 중심으로(『동양철학』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와 이형준의 〈『朱子語類』의 '史'인식과 朝鮮의 수용(『東洋古典硏究』Vol.0 No.78, 동양고전학회)〉 그리고 최보경의 〈朱子의 『大學』 '能慮' 해석에 나타난 실천적 유용성(『동양철학』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등 총 3편이다.

2019년 주희에 대한 논문은 총 8편이 있었다. 2018년에는 총 27편, 2017년에는 44편, 2016년에는 32편, 2015년에는 33편, 2014년에는 36편이었다. 과거 주희에 대한 논문은 송대 성리학 논문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하여도 과언 아닐 만큼 많았다. 주제도 다양 하여 경학, 역학, 경세론, 이기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에 골고루 분포 되어 있었다. 주희와의 다른 대상과의 비교 논문도 많이 보였는데 불교와 주희의 비교, 왕양명과의 비교, 조선유학자와의 비교 뿐 만아니라 서구의 이원론과 정치철학에서의 비교도 있었다. 그 뿐 만 아니라 주희에 대한 매우 다양한 주제의 신선한 논문들이 게제 되어 새로운 각도에서 주희를 조망해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2020년도에는 아쉽게도 주희에 관한 논문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일단 양이 적어졌고 내용도 그 전년도들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

그전에 있던 장식, 육구연, 채침등에 관한 논문은 2020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장식에 관한 논문은 편이 있다. 2018년에도 1편이 있고, 2017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이에는 장식에 관한 논문이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1편 있다. 2018년에는 2편의 논

문이 있고, 2017년에는 1편, 2016년에는 2편, 2015년, 2014년에는 논문이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채침에 대한 논문은 1편 있다. 2018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채침에 관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6년에 채원정에 관한 논문은 1편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이기·심성론, 3)수양론, 4)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2020년 총 논문 편수는 인물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1편의 논문을 포한하여 10편이다.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3편, 이기·심성론 4편, 수양론 2편, 기타 1편이다.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렵고 또한 주제별로 중복 되는 부분도 많아서 한 가지 범주로 넣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있다.

1) 경학(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 세 환	권(權) 개념에 대한 한(漢) · 송(宋) 경학(經學)의 쟁점 연구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	이소영	『中庸』의 다기성(多岐性)에 관한 연구 : 주희, 정약용, 심대윤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3	최보경	朱子의 『大學』 '能慮' 해석에 나타난 실천적 유용성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2020년 송대 유학 경학에 관한 논문은 김세환의 〈권(權) 개념에 대한 한(漢) · 송(宋) 경학(經學)의 쟁점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논

문)〉 와 이소영의 〈『中庸』의 다기성(多岐性)에 관한 연구 : 주희, 정약용, 심대윤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그리고 최보경의 〈朱子의 『大學』 '能慮' 해석에 나타난 실천적 유용성(『동양철학』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등 3편의 논문이 있다. 그동안 경학 논문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등 다양한 논문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서경(書經)』에 관한 논문 1편이 있고, 2018년도 경학연구는 5편이 있다. 2017년에는 10편, 2016년에는 6편, 2015년에는 5편, 2014년에는 7편이었다.

2) 이기심성론(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선중	주희의 理 개념에 대한 연구 : '理動靜' 해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	부천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	길 훈 섭	성리학의 도덕 체계에 대한 현대 과학적 재구성 : 『북계자의(北溪字義)』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양철학과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4	이원석	蘇軾의 人性論 연구 –도학 성립 이전의 북송대 인성론 논쟁과 관련하여–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4	한국동양철학회
5	임태훈	朱熹 心統性情 硏究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동양철학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이기심성론에 관한 논문은 박사논문 1편, 석사 논문 2편, 일반 논문 1편으로 총 4편의 논문이 있다. 박사 논문으로는 길훈섭의 〈성리학의 도덕 체계에 대한 현대 과학적 재구성 : 『북계자의(北溪字義)』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으로(성균관대 박사논문〉)와 석사 논문인 임태훈의 〈朱熹 心統性情 硏究(동국대학교 석사 논문)〉, 김선중의 〈주희의 理 개념에 대한 연구 : '理動靜' 해석을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이 있으며 일반 논문으로 이원석의 〈蘇軾의 人性論 연구 -도학 성립 이전의 북송대 인성론 논쟁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Human Nature of Su Shi's(『동양철학』Vol.0 No.54, 한국동양철학회)〉가 있다.

2019년은 이기론과 심성론을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4편의 논문이 있다. 2018년에는 이기·심성론으로 다시 합쳐서 12편이 있다. 2017년에는 이기론으로 3편, 2016년도 3편, 2015년 4편, 2014년에는 이기·심성론으로 12편이 있다. 2019년 심성론에 관한 논문은 3편의 논문이 있으며 2017년에는 심성론 논문으로 8편이 있다. 2016년, 2015년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윤리·수양론에 포함시켰고(2016년 17편, 2015년 13편) 2014년에는 이기·심성론으로 12편이 있다.

3) 수양론(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기현	주희(朱熹)의 호상학(湖湘學) 비판에 관한 연구 : 공부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2	박길수	정명도의 인설 연구(II)	동양철학 권호사항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2020년 수양론에 관한 논문은 김기현의 〈주희(朱熹)의 호상학(湖湘學) 비판에 관한 연구 : 공부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와 박길수의 〈정명도의 인설 연구(Ⅱ)(『동양철학』 Vol.0 No.53, 한국동양철학회)〉 등 2편이 있다. 2019년에 3편이 있었다. 2018년에는 수양론 10편, 2017년에는 윤리·수양론으로 22편, 2016년에는 윤리·수양론으로 17편, 2015년 윤리·수양론 13편, 2014년 윤리·수양론 16편이 있었다.

4) 기타(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이형준	『朱子語類』의 '史'인식과 朝鮮의 수용	東洋古典研究 권호사항 Vol.0 No.78	동양고전학회

기타 논문은 이형준의 〈『朱子語類』의 '史'인식과 朝鮮의 수용(『東洋古典硏究』Vol.0 No.78, 동양고전학회)〉 1편이 있으며, 2019년은 5편의 논문이 있었다. 2018년의 기타 논문은 11편이고 2017년도 역시 11편, 그리고 2016년, 2015년, 2014년은 각각 5편씩의 기타 논문이 있다.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2020년에는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이 총 10편 있다. 그 중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총 5편의 논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길훈섭의 〈성리학의 도덕 체계에 대한 현대 과학적 재구성 : 『북계자의(北溪字義)』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를 살펴보았다. 길훈섭은 본 연구에서 필자는 성리학의 도덕 체계를 진화론에 기초한 현대 과학의 성과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성리학의 도덕 체계가 지닌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북계자의』와 『주자어류』를 선택하여 도덕 체계와 관련이 있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현대 과학적 재해석 및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도덕의 기원 및 정당성, 도덕 심리 구조, 도덕 행위 구조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덕의 기원 및 정당성과 관련하여 성리학과 현대 과학의 융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리학에서는 도덕의 기원과 정당성을 논리적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형이상학적 실체, 즉 '리(理)'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도덕'이 구축되기까지의 오랜 진화의 시간과 '도덕'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비고정적 실체임을 간과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것은 형이상학적 철학이 '믿음'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한편으로 성리학의 '리'는 현상적 측면에서 형이하의 '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경험적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현대 과학과 어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리'는 현상적 측면에서

'사실'과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선천적이라는 점, 사람 이외의 동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 과학과 어울릴 수 있고, 유전자나 신체에 장착된 도덕모듈로 재해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도덕 심리 구조와 관련하여 성리학과 두뇌신경과학의 융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리학의 '성(性)', '정(情)', '심(心)'의 도덕 심리 구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 또한 성리학이 형이상학적인 틀 안에서 세워짐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검증의 장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마지오(Damasio)의 이론을 통해 성리학의 '성', '정', '심'의 용어를 각각 '정서(Emtion)', '느낌(Feeling)', '의식(Consciousness)'으로 재해석하고, 그 경험 가능한 사실로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덕 행위의 구조와 관련하여 성리학과 인지신경과학의 융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리학에서는 무의식적 '성(誠)'의 과정이 있고, 의식적 숙고의 과정을 거치되 내부로 향하는 '경(敬)'의 과정, 이것을 타인에게로 확대시키는 '서(恕)'의 과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인지신경과학에서 두뇌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 시뮬레이션 과정, 안으로의 집중 및 반성을 요구하는 의식의 내향적 시뮬레이션 과정, 밖으로 주의를 확대시키는 의식의 외향적 시뮬레이션 과정과 각각 어울릴 수 있으며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유의지(Free will)'와 관련하여 성리학의 도덕 체계에서는 현상 이면에 완전한 도덕적 본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현실로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사전적 수양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의지'가 중심적 논의가 될 수 없었으며, '도덕적 책임' 또한 내적 수양을 중시하는 성리

학의 특성상 수양의 주체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성리학을 현대 과학을 통해 설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성리학적 구조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을 통해 실험과 관찰에 기초한 무미건조한 과학적 이론들이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이 글에서 필자가 지향하는 최종적 목표이다.

2)이소영의 〈『中庸』의 다기성(多岐性)에 관한 연구 : 주희, 정약용, 심대윤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에서 필자는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면의 성찰, 도덕주체의 자세, 외면적 갈등의 대처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층위를 통해 『中庸』의 中과 庸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과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주목한다.

『中庸』 1장에 나오는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을 中이라 이르고 發하여 모두 절도(節度)에 맞는 것을 和라 이르니, 中이란 천하의 큰 근본이요, 和란 천하의 공통된 道이다"에 대한 주희(朱熹, 1130~1200), 정약용(茶山, 1762~1836), 심대윤(白雲, 1806~1872)의 견해에서 나타나는 中의 다양한 층차를 분석한다. 이렇게 내포된 견해를 분석하는 것은 中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中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양상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더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희에게 中이란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편벽되지도 않는

'마음의 상태'이며, 이런 마음의 상태는 天下의 大本으로 이미 인간의 덕(德)으로 내재되어 있는 천리(天理)의 당연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희의 中은 '내면의 성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풀어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약용에게 中이란 사람이 도덕주체의 자세로 노력해 나가는 꾸준한 '실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적극적인 실천 태도'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대윤에게 中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심대윤은 '외면적 갈등의 대처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中庸』에 나오는 中에 대한 세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中을 "상황에 따른 적절한 균형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中庸』 13장에서 등장하는 庸德之行과 庸言之謹에 대한 세 학자의 견해를 분석하여 중용(中庸)의 다른 핵심 개념인 庸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희에게 庸이란 일상의 도리(平常)를 뜻한다. 이때 일상의 도리(平常)란 '일상적인 도덕을 행하는 것'과 '평상시 말을 삼가는 것'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주희는 '일상적인 도리(平常之理)를 따르는 인간은 바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희에게 중용(中庸)이란,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편벽되지도 않는 마음의 상태가 본성(本性)으로 이미 인간의 덕(德)으로 내재되어 있으니 '일상적인 도덕을 행하는 것'과 '평상시 말을 삼가는 것'에 떳떳함을 가지고 노력함을 말한다. 반면 정약용에게 庸이란 '항상(恒常)'·'경상(經常)'으로 보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실천함에 있어서 꾸준히 행하는 '지속성'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정약용에게 중용(中庸)은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편벽되지 않은 신중한 상황적 판단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상태를 '꾸준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대윤에게 庸은 平常으로서 곧 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사회 안에서 타인과의 조화로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심대윤에게 중용(中庸)이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禮를 통해 전반적으로 많은 단서를 모아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균형을 찾아 해결하는 '겸손(謙)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庸이란 '상황에 따른 적절한 균형성(中)'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가야 할 "행보(行步)"라고 할 수 있다.

3) 김세환의 〈권(權) 개념에 대한 한(漢) · 송(宋) 경학(經學)의 쟁점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에서 필자는본 연구의 목적은 유학에서 권(權)의 의미가 한대(漢代)와 송대(宋代)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를 양자의 쟁점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는데 있다. 특히 권과 원칙을 의미하는 경(經)의 관계 설정을 시대별로 비교 분석하여 권의 행위 주체와 그 지위를 밝히고자 한다.

권 개념의 시대별 해석의 쟁점은 권과 원칙을 의미하는 경(經)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권의 초기 해석이 등장하는 춘추전국시대의 경우 『서경(書經)』, 『묵자(墨子)』등에서 본래의 의미인 저울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유가 경전인 『논어(論語)』와 『맹자(孟子)』에서 권은 원칙을 실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행동양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후 권은 한대와 송대에 이르기까지 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행동양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한대 이후 원칙을 실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권의 실천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러한 권에 대한 논의의 확장은 권 개념의 의미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불가피한 상황의 타당성, 권과 경(원칙)과의 관계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확장은 권의 실천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확정된다면 권을 통해 원칙을 거스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대와 송대에서는 권을 행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을 현인(賢人) 또는 성인(聖人)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이나 현인이 실천하는 권의 내용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대의 경우 반경합도(反經合道)를 주장하며 권을 경에 반하지만 도에 합치되는, 즉 결과가 선하다면 권을 행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송대에서는 권지시경(權只是經)으로 해석하여 권은 곧 경이라는 견해를 드러낸다. 즉 권을 행하는 것 또한 의미상 경(원칙)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견해차이는 권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 전자는 결과주의, 후자는 동기주의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권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통해 권과 경의 행위주체의 문제와 권 개념을 통해 파생될 수 있는 윤리 양상을 조명 하였다.

4) 임태훈의 〈朱熹 心統性情 硏究(동국대학교, 석사논문)〉는 전통적으로 儒家는 인간의 본성이 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당장 현실의 惡이라는 존재를 대면하게 된다. 性善을 주장한 儒家의 학자들은 善을 증명하는 동시에 惡의 기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儒家에서 善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접

하는 가치와는 층위가 다르다. 善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그것이 지칭하는 내용이 확정된 개념이다.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겠지만, 동서고금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려 형이상학을 요청하였고, 또 설득력 있게 이론을 구성하였다. 朱熹 이전의 儒家의 학자들 또한 서양에서 말한 제1원인 혹은 부동의 원동자 등으로 부르던 실체(substance)와 같이 운동 변화하지 않고 고정불변한 동시에 그 자체로 선한 本體를 상정하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존재의 근거인 동시에 가치의 근거인 대상을 그려내는 이론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惡의 존재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惡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惡이 작용하는 기제까지 밝혀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純善한 원인에서 어떻게 현실의 다양한 군상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朱熹는 理라는 善한 本體가 확정된 도덕 가치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善한 本體를 내재하고 있는데도 惡이 생기는 원인은 氣가 유행하여 만물을 구성할 때 생기는 편차에 따르는 문제로 설명한다. "확정된 도덕 가치"로의 본원은 생성의 근원이라 한다.

5) 김선중의 〈주희의 理 개념에 대한 연구 : '理動靜' 해석을 중심으로(가톨릭대학교, 석사)〉는 본 논문은 주희의 텍스트를 검토함으로써 理의 動靜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논문은 주희가 理와 氣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명제들을 중심적인 소재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理는 氣의 존재 가능성이자 자기 포괄적인 원리라는 것을 근거로, 理가 氣에 대한 本體이자 根源이라는 것으로부터 理의 능동성이 논리적

으로 도출된다. 또한 理一分殊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本體이자 根源으로서의 理가 개체 내에서 도덕적 경향성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理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理의 動靜를 이러한 理의 능동적 면모를 표현하고 있는 명제로 해석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太極과 性 개념을 다루며 이와 같은 결론을 보충적으로 살핀다. 우리는 이 장에서 太極의 動靜은 다만 氣 차원에서의 서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주희는 太極/理의 動靜을 氣 차원의 動靜과 구분해서 언술하고 있다는 점, 氣를 중심적으로 들어 動靜을 설명할 때도, 氣가 온전히 太極을 드러내는 상태를 지칭하는 誠 개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太極/理의 動靜이 太極/理의 능동성에 대한 명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논문은 性이 善하다는 주희의 주장이 어떠한 의미인지 검토하여 性에 본연의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깃들어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나아가 주희의 仁 개념에 주목하여 性의 본연의 온전함은 단순히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성과 조화를 향하고 있음 또한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理의 動靜은 이런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性의 능동성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20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성리학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분석 비평 하였다. 2020년 중국 송대 성리학 관련 논문은총 10편으로 2019년 21편, 2018년 49편, 2017년 66편으로 현저히 감소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년도를 살펴보더라도 2016년 39편, 2015년 40편, 2014년 49편으로 2019년을 비교하면 역시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2020년 인물별로 분류는 총 10편중 9편인데, 소식 1편, 정명도 1편, 주희가7편이 있다. 2019년은 총 21편의 논문 중 18편을 차지했다.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소옹,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와 남송의 주희, 장식, 육구연, 채침까지 총 9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북송시대에는 소옹에 관한 논문 1편, 주돈이 1편, 장재 1편, 정호 3편, 정이1편이 있으며 남송에는 주희 8편, 장식 1편 육구연 1편 채침 1편의 일반 논문이 있었다. 2019년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보인다. 우선 양이 매우 많이 감소했다. 2018년에는 총 49편 중 43편이 인물에 관한 논문이다. 살펴보자면 2018년에는 소옹 4편, 주돈이 3편, 왕안석 1편, 정이 이동 1편, 호굉 1편, 주희 26편, 장식 1편, 여조겸 1편, 육구연 2편, 진덕수 1편의 논문이 있었다. 2018년에는 왕안석, 이동, 호굉, 여조겸, 진덕수 등이 보이지만 2019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8년에 보이지 않던 정호가 2019년에는 3편의 논문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2018년에는 학위논문이 6편이었는데 반해서 2019년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을 2018년과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논문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희의 논문이 지난해 보

다 매우 적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7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심하게 난다. 2017년은 총 66편의 논문이 있었다. 인물별 분류를 보면 소옹 2편, 주돈이 4편, 장재 2편, 이정 2편, 호굉 4편, 주희 44편, 장식 2편, 육구연 1편, 진부량 1편, 양간 1편, 진덕수 1편, 오징 1편 등이 있었다. 또 진부량, 양간, 오징 등 새로운 인물들도 있었다. 특히 주희의 논문을 보자면 2017년에는 44편, 2018년에는 26편 2019년에는 8편이다. 갑자기 급격히 감소한 특징이 있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이기·심성론, 3)수양론, 4)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총 논문 편수는 인물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1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10편이다. 경학 3편, 이기심성론 5편, 수양론 1편, 기타 1편이다. 2019년엔 총 21편으로 각 분류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1편, 역학 2편, 심성론 3편, 이기론 4편, 수양론 3편, 인식론 3편, 기타 5편이었다. 2018년에는 경학 5편, 역학 4편, 이기심성론 12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3편, 비교연구 4편, 기타 11편 등 총 49편이었다. 전년도의 논문과 비교 할 때 역시 전반적으로 현저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주요 논문을 정리하고 분석 및 비평에서는 2020년도 학위논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020년 1년 동안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성리학 관련 논문은 총 10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한국 학계의 연구 업적이나 아쉬운 점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의 양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것은 중국 송대 성리학이 한국 학계의 관심의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

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여전히 주희에 대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어 여러 영역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중국 성리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계속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중국 송대 유학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기존에 연구 되지 않았던 학자들과 현대 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이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또한 기대한다.